

第58回 (定期會)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5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1月9日(木) 午前11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第2代後半期運營委員會幹事選任의件

審査된案件

1. 第2代後半期運營委員會幹事選任의件(委員長 提議) 1面

(11時35分 開議)

○委員長 高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6일 선거에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북구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다같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우리 성북구의회가 날로 발전하고,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여기 계신 여러위원님의 뜻과 중지를 받들어, 열과 성의를 다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또한 여러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第2代後半期運營委員會幹事選任의件(委員長 提議)

(11時37分)

○委員長 高允根 의사일정 제1항 제2대후반기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1항에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천거하고, 천거된 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간사를 선임하거나, 간사 업무의 성격상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또한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선임하기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高允根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세요.

○崔桂洛委員 최계락위원입니다. 간사선임은 구두호천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는 여러가지로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박경석위원님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高允根 최계락위원께서 구두호천으로 박경석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崔東煥委員 추천방법이 결정안된 상태에서 후보를 거명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생각합

니다.

○崔桂洛委員 방법말씀을 드리면서 후보자까지 아예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崔東煥委員 그러면 우선 방법이 결정되고 나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高允根 조정하겠습니다. 방법을 우리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섭위원님.

○李龍雲委員 지금 제가 시민복지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갑론을박이 힘이 너무 들고, 위원간에 앞으로 1년 반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가지고 토론없이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저쪽에서 해보니까 조율도 안되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론 전혀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高允根 방법이 또 있습니까? 허동익위원님 말씀하세요.

○許東翼委員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돈독히 하는 의미에서 호선해서 지명하는 위원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기명비밀투표할 경우 오는 부작용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계락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 중에서 간사는 위원장님의 보좌역할인 동시에 이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고 우리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구의회를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최계락위원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거명한 이상 또다시 무기명 비밀투표내지 어떤 그런 것이 됐을 때는 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만은 원만한 후반기 성북구의회를 이끌어가는 의미에서 최계락위원님께서 지명하신 위원님내에서 선출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高允根 최동환위원님 말씀하세요.

○崔東煥委員 아직 우리가 선출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자는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후보가 거명되는 것은 회의진행의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를 한 두번 해보신 것도 아닐진대 이렇게 위원장께서 먼저 회의진행 방식을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일단 첫 회의가 시작되는 마당에서 유감이 아닌가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관례로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의 회의진행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물론 그것이 적법한 절차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줬습니다. 주고 위원장이 위원장과 호흡이 맞을 것 같은 사람으로 지명하는 식으로해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다른 위원회가 어떻든 그것은 그 위원회 문제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기존의 관례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에게 권한을 줘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될시에 구두호천방법을 만약에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때 후보자를 추천해서 비밀투표를 할 것이나 그때 투표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아직은 후보자 결정방법도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식의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委員長 高允根 다음 김남효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南孝委員 김남효위원입니다. 원만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高允根 김남효위원에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45分 停會)

(11時52分 續開)

○委員長 高允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처음으로 사회를 보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계락위원님께서 구두호천에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또 이용섭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이 있었고 최동환위원께서는 위원장이 지명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용섭위원님께 재청 여부를 제가 실수를 해서 안 물어왔고 또 최동환위원께도 제가 재청 여부를 사회가 서둘러 보니까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상정을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미스를 해서 세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어떻게 하실런지 좀 답변해 주세요.

○李龍婁委員 제가 무기명 투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규정이 위원장이 지명 내지는 구두호천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기명투표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동의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高允根 이용섭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동환위원께서 발의한 위원장이 지명하는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제가 사회가 서둘러 보니까,

(「빨리빨리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 여부가 없습니까? 김남효위원님.

○金南孝委員 최위원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高允根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에 대하여 두개 안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적위원 13인입니다.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최동환위원이 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건입니다. 다음 최계락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동의안이 7인이 나왔고, 최계락위원 동의안이 5인, 기권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환위원의 동의안이 과반수를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선임 건을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李龍婁委員 위원장님 지명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냥 곧바로 지명하실 겁니까?

○委員長 高允根 그러면 정식으로 손을 들고 발언하십시오. 다음 이대일위원님 발언하십시오.

○李大一委員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두분 안을 두분 다 최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혼돈을 해가지고 어느 쪽에 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하지만 새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안되죠」하는 이 많음)

○委員長 高允根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정말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모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간사를 선임한 다음에는 운영위원장과 간사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승로위원을 간사로 지명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이승로위원님이 제2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가 선출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이 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승로위원님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李承魯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간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선임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동료 선배위원님들에게 죄송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고운근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어느 해 운영위원회보다도 더 내실있고 알차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委員長 高允根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2分 散會)

○出席委員 15人

俞 鎮 武 金 珉 奭 高 允 根
朴 時 俊 尹 晚 丸 尹 弘 老

金	光	植	安	敦	洙	任	泰	根
洪	性	溱	鄭	昌	萬	金	東	殷
金	順	權	羅	光	洙	柳	興	先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崔	石	根
---	---	---	---	---	---	---